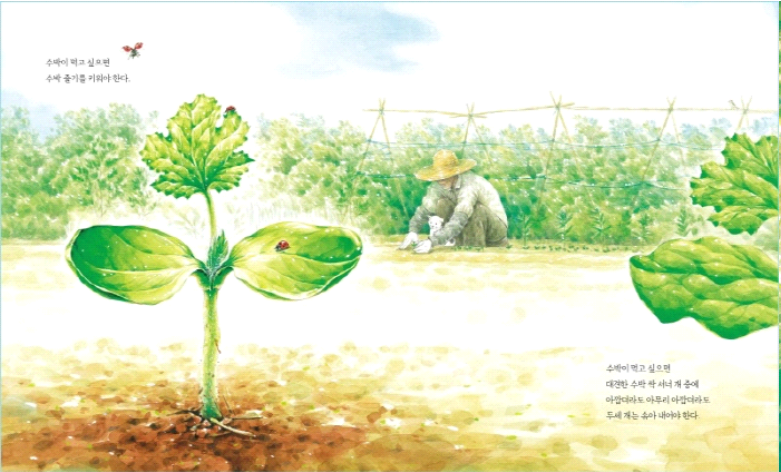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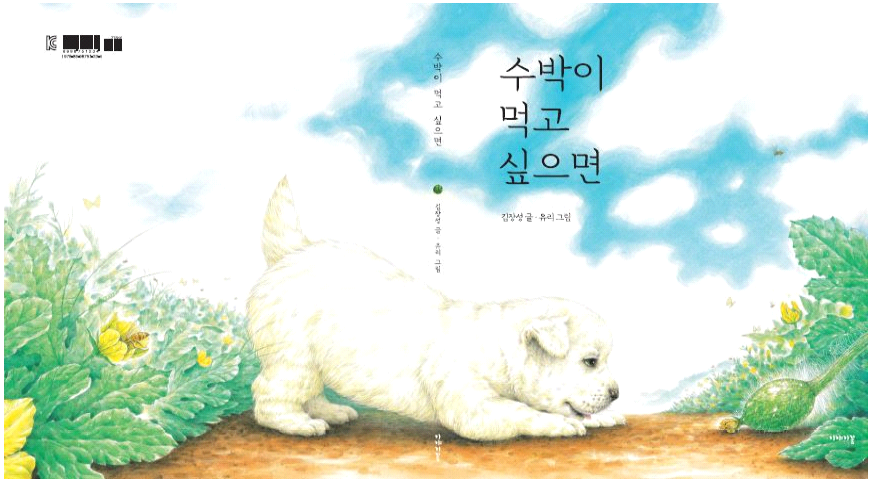


수박이 먹고 싶으면 김장성 글, 유리 그림, 이야기꽃

뒤죽박죽되어 있는 장면들을 오려, 원래 순서대로 붙여 꼬마책을 만들어 보세요.





참아주고 돌아보면 또 좋은 일을
출아주고 돌아보면 또 즐거운 인연을
놓아준 일들이 손으로 잡고 흘리며
한 뼘이 훌쩍 떨어진다는
고요한 보듬음이 느껴지는 것이다.



수확이 되고 싶으면
수확을 심어야 한다.



수확이 되고 싶으면
계절이 맞도록 물과 양을 맞춰
수확한 한 구렁이를 하고
산은 되여와 잘한 줄
알려야 되고 알아야 한다.
거기 가면 수확이 되니 그 고이 주리고
물 마실 심심한 줄 알아야 한다.



수확이 되고 싶으면
수확을 심어야 한다.

수확이 되고 싶으면
수확을 심어야 한다.



수확이 되고 싶으면
수확이 익기를 기다려야 한다.



그러나 그 속에서 돌아온 것에
확신이 든 뒤의 종자나 일하는
객관해야 기쁘게 할 수 있는
이야기를 가져와 줄 수 있는 것이다.



일하며 수확을 알아야 한다.



수확을 할 수 있게
주는 것만으로 알아 주어야 한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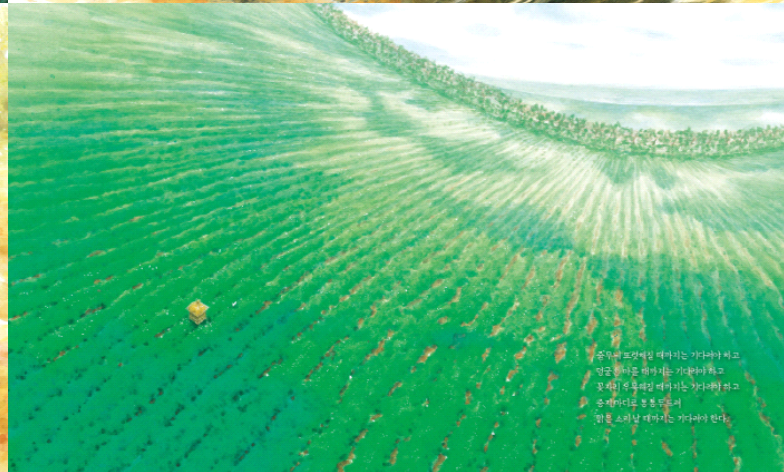
수확이 되고 싶으면
수확이 익기를 기다려야 한다.



일도 할 수 있게
일하는 일에 힘을 줄
인물이 꼭꼭 숨은 속살을
이끌어야 하는 것이다.



그러나 잘 지켜봐, 잘 지켜봐
조용히 있을 줄 알아야 한다.



수확이 되고 싶으면
수확을 심어야 한다.



한 시절을 소스라치게 돌아보는 것이다.



그러나 그러다라도
너무 지치지 않게 해야 한다.



수확이 되고 싶으면
수확을 심어야 한다.

그렇게 심고 가꾸고
가꾸고 가꾸어야 한다.



수확이 되고 싶으면
수확을 심어야 한다.